

「충청남도」

비육우사업과 새마을기술지도

전문위원 권순기 <충남대농대교수>

새마을지도자 강신길 <천원군풍세면풍서리공리마을>

1. 마을概況

본인이 1976년 4월부터 새마을技術奉仕團員으로서 이 마을과 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약 3年間 활동을 한 天原郡 豐歲面 豐面里의 宮里마을은 天安市에서 남쪽으로 약 7 km, 小井里에서 서쪽으로 약 5 km 떨어진 곳이며 部落의 戶數는 66 戶인데 이중에서 17 戶는 非農家이다. 농경지 면적은 62 ha 이고 戶當平均 1.27 ha로 전국 平均水準이라고 볼 수 있는 耕作地帶이다. 부락의 인구는 457 명이고 戶當 가족수가 6.9 명인데 教育程度는 高卒 13, 中卒 27, 國卒 317 名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의 특산물로는 고추생산을 들 수 있고 農家の 平均戶당 조수입은 年間 1977년에 1,476,000 원, 1978년에 1,630,000 원으로 전국농가 수준과 비슷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풍세면사무소와 농촌 지도소등이 이웃하고 있으므로 行政과 農業技術指導의 裨益도 잘 되고 있으며 洞里的 團合도 잘 되는 편이어서 1977년에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곡 1,000 kg 생산경진대회에서 997 kg을 생산하여 전국에서 1위의 영광을 차지하여 상금 100 만원을 수상받았으며 1977년에 자립마을로 승격되어 150 만원의 하사금을 받았다. 부락에서는 이 상금과 하사금(250 만원)으로 1978년에 갈포백지 공장을 建立하였으며, 이에 앞서 1974년에 마을회관과 1977년에 구판장을 각각 건립한 바 있고, 여기에

서 수입되는 금액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2. 肥育牛 經營의 動機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6년 봄에 이 부락의 全住民이 모인 가운데 1 과학자 1 마을 技術結緣을 맺고나니 과연 무슨 技術과 어떤 方法으로 奉사를 할까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農業發達史를 보더라도 농촌지도라는 것이 상당히 保守的이며 理論만의 전개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效果가 있을까 고민이었다. 技術奉仕라는 뜻과 같이 농어촌에 어떠한 科學的 技術을 奉사하는 것이 本然의 자세인지? 실질적으로 農家所得에 기여할 수 있는 技術이 아니고는 部落民에게 어필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술결연을 맺은 1976년 6월에 乳山羊 새끼 1마리와 햄프서種 돼지새끼 2마리 및 로토종 병아리 50 隻를 忠南大學校 부속동물사육장에서 분양하였다. 본인의 전공이 축산인 까닭에 우선 개량품종의 家畜부터 분양을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농가 4 가구만 혜택이 갔을 뿐이므로 全體部落에는 아무런 效果가 없었다.

이 밖에 우량농작물 品種을 주선도 하였으나 이 부락의 숙원사업은 洞里 앞 237 정보의 논을 경지 정리하고 관개시설을 하며 하천제방개조로 수리안

전담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事業이 꼭 必要하다는 것은 본인도 共感이 절실히 갔으나 소도 언덕이 있어 비빈다는 格言과 같이 나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다. 즉 기술만 가지고는 不可能하며 행정당국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勿論 道청과 郡청에도 알아 보았으나 容易한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실천이 可能한 일부터 착수하려고 道 畜政課에 협력을 얻어 肥育牛 融資를 요청하였더니 時期가 늦어서 4 마리분의 融資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것이 부락의 團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利權 다툼을 하다가 融資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포기의 理由는 融資에 必要한 農地의 담보설정을 농촌에서는 기피하는 風習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7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韓牛價格이 상승하자 融資를 포기했던 농가는 후회를 하였으며 1977년 11월에는 부락에서 自進하여 肥育牛 資金을 얻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다시 道 畜政課를 찾아가 교섭한 바 전부락이 참여할 수 있는 40頭的 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기술지도는 본인이 맡기로 하였다.

3. 肥育牛 經營의 實態

肥育牛 資金이 融資된 것은 1978년 7월에 20頭분이 방출되었는데 이중 16頭가 부락에 配定되었고 참여한 농가는 12個 農家였다. 肥育牛 資金이 방출되자 素牛값이 폭등하여 生體重 kg당 1,900~2,000원 정도에서 구입하였고 300kg內외의 素牛를 60만원 이상에 구입하였으므로 농가에서도 20여만을 자담하여야 되며 따라서 자체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에서는 참여도 할 수 없었다. 2次 融資 20頭분은 11월에 방출되었는데 이것은 신용담보액을 넘어서게 되므로 抵當設定이 요구되었다. 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農村의 전통적 保守性은 농지의 저당설정을 기피하는 습성이 있으며 또 비육우의 가격하락은 融資를 기피하려는 농가를 늘게만 하였다. 이것을 說得하여 희망농가 5戶에 다시 16頭的 資金을 融資받았다.

이때 기술지도를 하는 자의 입장으로는 만약에 肥育牛 價格이 하락하여 농가가 損害를 보게 된다면 다시는 部落에 올 면목이 없으며 技術奉仕도 끝난다는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輸入 쇠고기의 다량방출이 1977년 말부터 상승하던 쇠고기 값을 억제하는데 効果를 보았으나 한우의 산지

값은 계속 하락을 거듭하여 1979년에는 연초부터 이 부락을 찾아갈 수조차 없게 되었다. 전화나 書信으로 농후사료의 餘어량을 줄이고 자급사료를 많이 주어 經營비를 줄이면서 價格의 상승시기를 기다려 달라고만 부탁하였다.

勿論 1978년 여름 비육우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사양기술보다도 素牛의 구입과 肥育牛의 판매가 격이 重要하다는 점은 누누히 說明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았다. 部落民들은 輸入 쇠고기의 방출을 중지하도록 하라는 요청이지만 나로서는 力不足의 일이며 다만 物量調節에 차질이 있는 것 같다고 2월중에 영농기술 강습으로 모인 部落民들에게 변명을 하여 다소간의 이해를 求하였다. 그후 축산진흥회에서 비육우에 대한 補助金을 인상 지급하게 되었고 輸入 쇠고기의 방출물량도 調節이 되어 비육우 經營이 안정을 회복하기에 이르러 現在까지 그간의 實態를 조사하였고 큰 損失도 所得도 없는 정도가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5頭이상을 사육하는 몇 農家에 대한 대표적 經營實態를 조사 보고하는 바이다. 이중에는 K대학 축산학과를 卒業하고 農村에 定着하여 낙농을 經營하려고 이곳에 와서 농지를 구입하고 肥育牛 事業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출신의 젊은 농가도 있다.

이 조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素牛의 구입단가는 1978년 7~8월에 kg당 2,000원 이상이었으며 10~12월까지에는 1,800원 정도였는데 素牛價格이 인상되는 요인이 비육우 融資金의 集中放出에 의해서였다. 또 1979년 1~2월에는 비육우의 판매가격이 kg당 1,600원이었으므로 비육우를 시켜도 사료비와 利子등을 제하면 큰 所得이 없었으며 더우기 畜畝의 감가상각이나 자가노동력 및 자기부담 資金의 利子등을 經營비에 포함시키면 赤字所得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4월 이후에 계통출하의 장려금 인상과 輸入 쇠고기의 물량조절로 안정세를 되찾아 現在는 1頭當 비육우에서 月平均 3만원의 所得은 얻을 수 있다.

4. 技術指導 結果 및 展望

이상 3년간 宮里마을과 새마을技術奉仕團의 結緣을 맺고 흐뭇하였던 점은 1977년도에 主穀 1,000kg의 생산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또 같은 해에 自立 마을로 승격되었고 1978년에 시작한 비육우 사업도 현재까지 큰 차질없이 進行中이라는 점이다. 또

肥育牛經營을 指導하였던 中間의 結果를 조사 분석하여 平價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비육우 融資金의 集中放出은 素牛의 가격을 폭등시킨다.
- 2) 融資期間이 18개월인데 단위조합에서는 9개월에 상환을 要求하고 있다.
- 3) 輸入쇠고기의 다량방출은 한우의 산지가격을 하락시키므로 물량의 조절이 요망된다.(5월부터 시행중임)
- 4) 일당 증체량이 0.8~1.4 kg으로 농가의 비육우 사육기술은 향상되고 있다.
- 5) 비육용 소우가 부족되어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으므로 과감한 수입이 요망된다.

한편 비육우 사업을 지도한 이후 이 部落의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되어 現在 전체농가에서 79頭를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草資源에 여유가 있으므로 소우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肉牛의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고 소우 가격의 안정과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하는 농민이나 쇠고기를 소비하는 國民이 다같이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또 첨가하고 싶은 말은 농촌의 기술지도가 행정의 뒷받침이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농산물의 증산으로 생산이 과잉되어도 成果가 없고 또 생산이 不足되면 농산물의 수입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의 적정공급과 가격의 안정이라고 본다. 특히 쇠고기는 앞으로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도 어려울 전망이므로 素牛의 도입과 증식이 절실히 요망된다.

끝으로 宮里마을의 畜원사업인 경지정리와 관개 시설이 1979년도에 완성되어 앞으로 부락 전체가 참여하는 논 이모작의 促成栽培 団地를 통해서 所得이 증대되기를 바라며 또 일부 비육우농가를 酪農事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다.

< 표 1 > 徐釋棉 (41세) 農家의 肥育牛 經營調查表

항 목	소우 구입 가격			비육우 판매 가격			조수입	사 육 기 간	
	생체중	kg당 단가	금 액	생체중	kg당 단가	금 액			
조수입	1회	290 kg	1,810 원	525,000 원	380 kg	1,500 원	570,000 원	45,000 원	78.11.13~79.4.11 149
	2회	355 "	1,905 "	675,000 "	464 "	1,733 "	*804,000 "	129,200 "	78.11.13~79.4.23 161
	3회	290 "	1,897 "	550,000 "	435 "	1,731 "	*753,000 "	203,000 "	78.11.5~79.5.13 190
	4회	360 "	1,694 "	610,000 "	455 "	1,780 "	*810,000 "	200,000 "	79.3.16~79.6.11 87
구비	25 kg (1일생산량) × 4두 × 147일 × 5원 (kg당)						77,500 "		
계	2,360,000 원			2,937,200 원			654,700 "		

항 목	금 액	산 출 륜 거	
경 영	농후사료 1회	59,004 원	149일 × 4.5 kg (1일평균) × 88원
	2회	63,756 "	161 " × (") × "
	3회	75,240 "	190 " × (") × "
	4회	45,936 "	87 " × 6 kg (") × "
비	자급사료 1회~4회	22,000 "	벗짚 1,100 kg × 20원
	위 생 비	5,640 "	피린, 스파라에스, 비콤, 칼슘 (주사)
	농형저당설정비	8,400 "	840,000 × 연리 13% (6개월간)
	농형이자	5,460 "	
소 계	334,576 "		
소득	조수입 654,700 원 - 경영비 334,576 원 = 소득 320,124 원		

* 축협에 계통출하하여 장려금을 포함한 수령액임.